

분단된 한반도에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1.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주는 도전

2010년은 한반도가 끝나지 않은 전장이란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킨 한 해였다.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포염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이전 그것과는 분명 다른 차원의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 무장분쟁 상황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과 청년들이 아까운 생을 마감해야 했고 그 사상의 아픔은 사랑하는 핏줄을 잃은 가족과 지인을 넘어 전 사회의 구성원에게 전이되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들의 장례식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히 TV화면 속의 안타까운 타인의 불행일 수만은 없었다.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왠지모를 분노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일련의 사건은 억압과 굶주림 속에 불쌍하게만 여겨지던 북한이 전쟁에 미쳐 날뛰는 괴물로 다가오고 동족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믿을 수 없는 원수로 다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근대사에 찾아보기 힘든 삼대(三代)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모습 보면서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해 불신과 증오가 증폭되어 갔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 군사정권 때의 적화과정(enemy process)를 다시 보는 듯한 심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분쟁의 불씨를 안고 대립해왔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정치권에서는 그제야 보복과 응징이란 단어가 곧 애국인양 정부와 국회를 가리지 않고 앞 다투어 안보정국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더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안보정국을 틈타 논란의 소지가 있던 국방비를 증액시키면서 북한에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힘에는 힘’ 논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 정부 당국 모두 애써 왜면한 채 물러설 수 없는 제로섬 게임 속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몰아가고 있었다.

중국과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정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우려하면서도 각자의 패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였고, 중국의 자체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서해에 파견하여 북한은 물론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단행하였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식민지 과거사 때문에 남과 북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마저도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과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동북아 진출의 빌미와 그렇게 우려하던 일본 평화헌법(9조) 개정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충수를 한국정부는 두고 말았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하고 구시대적인 군사모험주의는 우리민족의 갈등으로 생겨난 어쩔 수 없이 치러야하는 한민족의 역사적 죄 값 일수 밖에 없다. 결국 한

국사회가 당황했던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치는 답답한 의문은 ‘왜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57년이 지난 21세기에 아직도 우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냉전의 구조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였다.

그렇다면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교회도 정치적 이데올로기 색깔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신세대간의 이념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엄연한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진보적 기독교 진영에서는 최근의 군사적 충돌과 희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남과 북의 정부당국에서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여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채널의 복원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남한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식과 요청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교단 협의체에서는 북한정권의 도발적 군사행동에 대해 분노하면서 응징하고 보복해야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나 강대국이 하나님으로, 군사적 조치가 기도로 대신했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응징하여 주시고 한국이 튼튼한 안보위에 평화롭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어려움과 한국민족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북한 독재정권을 하루속히 무너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어느 교회는 군대의 엄호와 지방정부의 지원속에 북한지역에서 흰히 내다볼 수 있는 김포 애기봉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점화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조치를 할 수 없는 교회입장에서, 2004년 남북의 합의에 따라 없어졌던 크리스마스트리라도 밝혀 북한에 자유와 번영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용감한 실천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기도와 트리 점등식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랜 필름을 다시 돌리듯이 낯설지 않고 친밀하다는 점이다. 마치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적화과 정처럼 말이다. 지금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30-40대 크리스천이라면 어릴 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모였던 군중기도회나 국가의 기념일 전후로 교회에서 기념하던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북한만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의 한국교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악한 북한정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할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제 건강한 의심을 품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교회는 국가(세상왕국)에 의해 만들어진 이념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혼돈하고 있지는 않은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 위기의 한반도를 사는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의심을 품고 혹시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녹슨 기계처럼 한반도를 짓누르고 꿈쩍도 하지 않는 냉전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한반도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논리에 기초한 신학적 이해와 국가주의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 전쟁의 신학과 평화의 신학

7년 전 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주변의 선전활동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의해 사라진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를 남북의 군사충돌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 한교회의 요청으로 다시 밝혔다는 사실과, 그런 교회의 ‘종교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유지하며 경계하는 현실은 뭔가 씩씩한 뒷맛을 남긴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트리(물론 이마저도 성서적 전통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전활동용으로 전락하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교회사의 많은 장면들과 오버랩 되어 비춰진다. 사실 교회사에서 교회가 정치권력과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매우 드물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귀속되면서 이 불행한 역사는 시작된다.

AD312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철저한 기독교 제자도는 당시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급진적 성향을 나타냈고 위험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위험함의 한가운데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국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사도들의 열성적인 전도로 인해 기독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사도들의 전도 결과물이기도 한 2-4세기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저술가들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2세기 초반 안티옥 교회의 주교였던 성 이그나티우스(Ignatius)를 비롯하여 비폭력 신념으로 순교를 당했던 희랍의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 리용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Irenaeus)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저술활동을 남겼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독교인들을 평화의 백성으로 보았고, 미가서 4장과 이사야서 2장에 나타나는 ‘선지자적 이상 Prophetic Vision’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이해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가서 4:3)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내부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배를 인정하는 모든 구조와 상태에 까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그룹과 나라들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싸우는 데 익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달된 새로운 율법은 관대함을 강조하며 도리어 뺨을 맞을 땐 다른 뺨을 돌려내고, 해를 입을지라도 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의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기독교인)는 더 이상 싸움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으로 온전히 배움을 받고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외에 누가 과연 옛 율법을 폐기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까지 저술하고 있다.¹⁾ 그렇지만 이런 초기 기독교의 이해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바뀌게 된다.

1) 드라이버 (이상규 역), **그리스도인이 본 전쟁과 평화**, KAP, 2010, p 28-38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주의에 편입되면서 겪었던 도전 중에는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폭력의 사용을 용인해야 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우상숭배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신(神)적 권위와 권한이 부여된 황제에게 충성을 기초로 세워진 제국과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군국주의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하나님을 섬기라 요구와도 같았다. 하지만 결국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신학은 황제와 제국의 입맛에 맞게 형성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황제보다 위에 놓은 듯 보였지만,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은 서서히 왜곡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영적영역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콘스탄틴 시대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Eusebius)와 이집트 교회의 지도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처음에는 위에 언급한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논조에서 평화신학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된 후부터는 이들의 논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세비우스는 로마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부름으로써 선지자적 이상을 로마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켰다. 또한 아타나시우스는 전쟁의 영역을 영적부분에만 한정함으로써 평화의 선지자적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제국의 전쟁(현세에 기초하기 때문에)에 참여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주장은 4세기 후반 등장하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 just war’ 이론에 의해 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공인된 국가(정부)의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전쟁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평화가 마음속과 사후 세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²⁾ 이 때 부터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로써 폭력사용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의 신학적 뒷받침까지 하는 권력의 시너로써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결과 11세기 십자군 전쟁 같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는 건잡을 수 없는 급격한 타락과 부패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런 교회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뿌리 채 흔드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시 유럽사회를 뒤 흔들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도 초대교회의 평화전통과 신학을 되살리는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영주(독일)와 시의회(스위스) 등 신흥 정치세력의 지지 속에 종교개혁이 성공함으로써 부패한 중앙권력과 교회로부터는 개혁되었지만 새로운 권력과 결탁하여 다시금 권력의 한 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결과 4세기 이후 한 번도 초대교회의 평화적 신학과 전통이 실천되지 못하고 기독교는 국가에 종속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전혀 새로운 율법으로 지배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즉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선포된 ‘메시아적 이상’의 실현이 4세기 이후 등장한 국가교회의 틀 속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왕국 밑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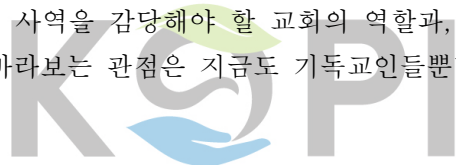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국가교회 중심의 교회사 가운데서도 면면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룹이 있었다. 바로 전통적 평화교회(Historical Peace Church)로 불리는 몇몇 교회들(메노나이트, 아미쉬, 형제단, 퀘이커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의 뿌리

2) & 엘레노르 크라이더 (고영목, 김경중 역),

가능인가?, KAP, 2003, p.40-41

가 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급진개혁파인 아나뱃티스트(Anabaptist)들의 신학과 이해는 교회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정신을 제공하고 있다. 루퍼스 존스(Rufus M. Jones)는 자신의 논문 ‘신비주의 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아나뱃티스트를 미국 개신교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종교선택의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들을 수 세기 전에 시작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나뱃티스트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처음으로 분명히 선언한 사람들이며, 이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기독교계를 향해 도전한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 이들의 급진적 제자도와 평화주의 신앙은 이후 현대 기독교 평화주의 이론(존 하워드 요더 등의 기여로)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으며 노예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전쟁세 거부 등 여러 형태로 실천되었다. 또한 지금은 많이 알려진 공정무역,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회복적 정의운동, 분쟁지역에 직접 비폭력 개입을 하는 기독교평화사역팀 (Christian Peacemaker Teams)이 모두 이들 교회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들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원칙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전통적 평화교회의 이해는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급진적 사회변혁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말하는 급진적 사회변혁은 결국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고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가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메시아적 비전’과 맞닿아 있다. 비록 전체 교회 속에서 소수정파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써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로써 국가가 아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잔잔한 도전을 주고 있다.



3. 한국교회, 국가교회의 옷을 벗을 수 있을까?

어느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의 표현처럼 ‘국가와 보험회사에 교회의 역할을 내맡긴 한국교회’⁴⁾에게 국가교회로부터 독립하라는 요구는 생소함을 넘어 어쩌면 모든 기독교인을 내려놓으라는 아픈 요구일수 밖에 없다. 장로 대통령이 나오고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를 수 없는 기적이라고 믿는 교인들에게 이 요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이상주의자들의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요직을 맡고 군대의 수뇌부가 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을 이루고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사이 교회는 그 빛과 맛을 잃어갔고 이 땅을 통제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발상은 무례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하지만 교회위에 국가를 올려놓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강력한 무기와 군사강대국의 힘을 더 믿는 것이 한국교회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외치지만 북한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은 분단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닌가? 엄연히 종교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몇 가지

3) 벤더 (김복기 역), *비전(The Anabaptist Vision)*, KAP, 2009, p18

4) 김두식, *교회속의 세상 세상속의 교회*, 홍성사, 2010

지엽적 현상으로 한국교회를 로마제국 이후의 등장한 국가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 국가교회인가, 아닌가 문제는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도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로마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황제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제국의 시스템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순전한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로마제국의 세금문제를 제기 했을 때처럼 예수는 분명히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것을 가르치셨다(마태복음 22장). 즉 국가는 자체적 통치 시스템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기초로 세워진 몸이다. 이 원칙에는 같은 것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것도 많다. 예를 들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과 교회의 자선과 구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가는 로마서 13장의 내용처럼 선한사람을 상주고 악한사람을 심판하는 응보적 정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회는 끝없는 용서(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를 통해 화해를 위한 회복적 정의가 원칙인 공동체이다. 국가는 부와 능력에 따라 신분의 차등을 두고 보상과 권한에 차별이 있지만, 교회는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차별이 없는 원칙으로 이뤄진 공동체이다. 국가는 때에 따라서는 원수들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해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원칙이 통용되는 집단이다. 국가는 최종권한이 사람들에 의해 뽑힌 권세자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있지만, 교회의 최종권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이 만든 제도로 예수를 사형시켰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와 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협력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상충할 때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때 기독교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일수 밖에 없다. 여기에 역사적 배경과 상황적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신학을 껴맞추는 것보다 더 솔직한 믿음일 것이다.

그럼 ‘한국교회가 국가교회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누구를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이다. 역사적으로도 소위 한국교회의 주류가 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보다는 당시 정치상황에 맞는 ‘생존원칙’에 충실했다. 일제시대 신사찬배 문제와 군사정권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는 국가의 입맛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생존에 중요한 요소임을 배웠다. 오히려 안전한 교회성장과 국가에 대한 축복을 맞바꾸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써 교세를 확장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각인되었다.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군대는 무시할 수 없는 선교의 황금어장이 되었다. 따라서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고민 속에 있던 군사주의나 군국주의와 신앙의 문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한국교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남들보다 성실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 열심히 응하고 더 충실히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큰 그림은 별로 중요치 않다. 어디에 가든지 열심히 전도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논의가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한국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UN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기독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렵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4세기 이후 국가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왜곡된 신학과 교회사의 문제이자 지금도 남아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의 도전이기에 이 정도로 덮어둘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요즘 굵직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내에 일어나는 신구목사간의 분쟁이나, 목사 와 장로사이의 갈등, 연말 교단총회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진흙탕 법적 싸움은 이제 세상에 별로 흥미로운 이야기도 아닌듯하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싸우는 곳’으로 각인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쟁의 해결방식이다. 물론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라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어찌면 갈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따랐던 사도들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분쟁에 대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초대교회의 분쟁해결을 위해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토론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갔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범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체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통용되는 유일한 곳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과는 다르게 분쟁의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사도바울의 가르침처럼 서로 송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린도전서 6장). 어찌면 초대교회는 갈등을 통해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외부의 핍박에도 견딜 수 있는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내의 분쟁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흐르면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서로를 소송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후보에 광고를 내고 교회건물 벽에 현수막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자연스럽게 벌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들의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교인, 교단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분쟁 당사자들이 국가의 권위만은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진다.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왔고 지금도 그 요청을 받고 있다. 어떤 교회는 이 시대적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어떤 교회는 이 시대적 요청에 왜 교회가 응답해야 하는가도 모른 채 열심히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가 어는 쪽 교회에 있던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의 기독교인으로써 우리의 죄악으로 형성된 역사적 죄 값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메시아적 비전)을 안 이상 우리는 그 이상의 실현에 최

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에게 속해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이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단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사역은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몫이다. '힘에는 힘'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분단되고 무기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의 살롬의 땅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다름 아닌 평화신학의 정립이다. 신학이 왜곡되면 제대로 신앙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잘 배워왔다. 변질되어 버린 국가교회 신학을 기초로 한국교회가 성장한다면, 아무리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고 모든 장관이 기독교인으로 바뀐다 해도 이는 국가 정치 시스템을 잘 작동하게 만드는 신학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학이 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메시아적 이상이 실현되는 그 날을 꿈꾸는 기독교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 같이 비를 내리시고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낮은 곳을 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악인의 심판의 최종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인은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정복하는 유대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능욕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순전한 어린양의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남과 북이 쌓아올린 가공할 무기와 군사주의의 우상에서 돌아서서 한국교회는 이 고난의 땅에 회복과 치유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꿈을 한번 꺾으면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메시아적 비전을 품는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선 성경을 평화의 눈으로 해석할 것이고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살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기독교 평화주의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를 위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세계 교회사와 한국교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기독교적 역사인식이 형성된다면 교회는 안으로는 교회 내 분쟁의 문제로부터 밖으로는 분단되고 분열된 한국사회와 한반도를 향해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거듭 날 수 있다. 이 변화된 환경에서는 교회 주일학교의 무미건조한 교리 교육이 평화와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 교육과 훈련으로 바뀔 것이고,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땅에 적용하기 위한 활기찬 연구가 일어나고 국가와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를 소송하는 교회의 분쟁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교회와 교단은 훈련된 조정자들을 통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남과 북의 정부에게 비무장 지대를 진정한 비무장 지대로 회복하고 오히려 이를 넓혀 한반도의 땅의 절반 이상을 무기가 없는 비무장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UN이나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국의 정부들을 로비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이 땅의 마지막 분단국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당하고 선한 요구를 무시할 수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무기가 없는 완충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군사대치나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보와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만 여겨왔던 군사체제가 탐욕스러운 정치집단의 허구였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남과 북의

넓은 관습과 군사체제에 도전하여 양측을 당황하게 한다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탄압과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늘 분쟁과 전쟁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한민족과 불안감과 염려 속에 지켜보고 있는 세계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이들을 통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 희망의 메시지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250km에 달하는 휴전선에 총이 아닌 꽃을 든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인들을 대신하여 서는 그 날을.



[자료 이용안내]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와 저작자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개인 소장 외에 사용하실 때는,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처(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를 명기해야 합니다.